http://dx.doi.org/10.5392/JKCA.2015.15.03.088

한국 성인 성범죄자의 개인 수준 심리적 특성 연구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dult Sexual Offenders in South Korea

정민철, 조영일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Min-Chul Jung(mcjworld@hanmail.net), Young-Il Cho(young.il.cho@gmail.com)

요약

본 연구는 일반인, 일반범죄자, 성범죄자의 집단 간 비교를 통해 한국 성인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범죄자 123명, 일반범죄자 102명, 일반인 162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특성을 조사하고 집단 간에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우울, 분노, 자기존중감, 공감, 충동성, 수치심, 사이코패스 성향, 알콜의존 변인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성범죄자가 일반범죄자보다 높은 변인들은 우울, 충동성, 충동성-인지였으며, 성범죄자가 일반인보다 높은 것은 우울변인이었다. 일반범죄자는 자기존중감, 사이코패스 성향에서 성범죄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인이 일반범죄자보다 높은 변인은 충동성, 충동성-인지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 연구의 제한점,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에서 하였다.

■ 중심어 : | 성범죄 | 성범죄자 | 심리적 특성 | 집단 차이 |

Abstract

This research study was aimed to identify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ex offenders. In order to achieve those objectives, 123 sexual offenders, 102 common criminals, and 162 normal people were surveyed. We reviewed the previous studies examined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exual offenders and summarized main variables related sexual offender at the individual level. Those variables included depression, anger, self-esteem, empathy, impulsivity, shame, psychopath, alcohol dependenc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s of depression, self-esteem, impulsivity, impulsion-cognitive, psychopath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 keyword : | Sexual Criminal | Sexual Offender |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 Group Differences |

I. 서 론

대검찰청에서 공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강간사건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이에 덧붙여서, 성범죄와 관련된 국내·외의 통계와 연구[2-5]들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성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고, 조사 대상 여자 대학생의 73.4%[6]가 성피해 경험을 보고하였다.

성범죄를 조사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성인 성범죄자보다는 청소년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다

* 이 논문는 2013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운정 글로벌프로젝트 지원사업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5년 02월 06일
수정일자 : 2015년 03월 02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3월 11일
교신저자 : 조영일, e-mail : young.il.cho@gmail.com

[7-9]. 이러한 연구의 경향성과는 다르게, 실제 청소년 성범죄의 발생 빈도는 성인 성범죄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예를 들어, 전체 성범죄에서 청소년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9년 11.4%(1,574명), 2010년 12.4%(2,107명), 2011년 10.7%(2,021명), 2012년 8.7%(1,686)으로 대부분의 성범죄는 성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1]. 이에 덧붙여서, 청소년 성범죄자와 성인 성범죄자들은 범행장소, 범행동기, 심리적 특성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10].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 성범죄자가 아닌 성인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11-13]에서는 성범죄자의 개인 수준의 심리적 특성이 일반인의 그것들과 비교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범죄자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심리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와 일반인뿐만 아니라 일반범죄자를 모두 포함하여 이들의 개인 수준의 심리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는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연구가 주로 보호관찰소에 있는 청소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덧붙여서, 국외의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청소년 성범죄자의 특성을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정된 개인 수준 심리적 특성들이 성인 성범죄자 집단에서 관찰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성범죄자, 일반인, 일반 범죄자와의 비교를 통해 범죄자의 일반적인 심리적 특성을 배제하고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국내 성인 성범죄자들의 고유한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활용함으로써, 성범죄자들의 치료 및 교정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II. 본 론

1. 성범죄자의 개인 수준 심리적 특성

성인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미미한 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될 변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성폭력 가해자 및 성범죄자들에 대상으로 진행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심리적 특성들을 검토하였다. 국내·외의 선행연구 결과, 개인 수준의 심리적 변수들로 “공감능력, 자기존중감, 수치심, 우울, 분노, 충동성, 사이코패스, 알콜의존”을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세 집단들(즉, 일반인, 일반 범죄자, 및 성범죄자) 간에는 개인 수준의 심리적 변인들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가?

1.1 공감

성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공감 수준이 낮으며, 몇몇 연구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낮은 수준의 공감을 성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11][14][15]. 예를 들어 아동 성추행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11]와 성폭력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7]에서 청소년 성범죄자들은 자신의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 수준이 대조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와는 별도로, Hoppe와 Singer는 성관련 범죄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낮은 수준의 공감을 유지한다고 주장하였다[16].

1.2 자기존중감

성폭력 범죄자들의 자기존중감의 수준을 비교한 연구들에서 가해자들은 비교집단에 비해 자기존중감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더불어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다른 성폭력 가해자들에 비해서 더 낮은 수준의 자기존중감 점수를 보였다[7][11][17][18]. 특히, Bourque는 성폭력 발생의 원인을 가해자들의 낮은 자기존중감 수준이라고 주장하였다[19].

1.3 수치심

수치심과 관련된 초기 연구들에서는 역기능적인 가정환경과 수치심의 높은 관련성이 보고되었다[20-22]. 성범죄자들은 발달과정에서 역기능적 가정환경으로 인해 성적학대와 폭력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발

달과정에서의 이러한 경험은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높였다[23-25]. 특히, 성범죄에 있어 수치심은 최초의 성범죄의 발생보다는 재범과 보다 높은 수준의 관련성을 보였다[26]. 보다 구체적으로, 수치심은 공감 수준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인식하지 못해 성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는 별도로, Bumby, Marshall & Langton은 성범죄 후에 수치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7].

1.4 우울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가운데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45%에 달했으며[28], 성인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0-32%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30]. 정형수는 수치심과 자기비난의 경향성은 우울과 정적인 상관을 있다고 보고하였다[31]. 또한, 수치심은 우울, 불안, 자살, 자신을 향한 분노, 섭식장애 등 정신 병리와도 정적 상관이 있었다[32][33]. 이러한 연구들과 함께, 성범죄자들의 공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기존연구들에 근거하여[7][12], 성범죄자들은 깊은 정서인 수치심보다는 표면적인 정서인 우울감을 보고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1.5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성적 충동과 환상, 권력과 통제에 대한 갈망, 희생자를 즐거움이나 만족의 도구로 생각하는 의식 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34]. 국내연구에서는 사이코패스가 전체 인구의 약 1% 정도이며 교도소 수감자의 약 15%-25% 정도로 보고되었다[35]. 외국의 경우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의 약 50%에서 80%가 반사회적 성격장애 기준에 해당되고 있으며 수용자의 15% 정도가 사이코패스로 나타났다[36].

1.6 분노

Stevens는 강간범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강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폭력, 분노, 성욕이라며 사실상 강간은 폭력 또는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선호되는 수단이라고 보고하였다[37]. Groth, Burgess와 Holmstrom도 분노를 성폭력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강간범을 폭력 지향형(power assertive), 폭력 강화형(poser reassurance), 분노 보복형(anger retaliation), 분노 가학형(anger sadistic)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유형에 따라 범죄동기에서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였다[38].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에서 분노감이 성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간주하며, 성범죄자의 중요한 심리적 특성으로 인식되었다[39][40].

1.7 알콜의존

성범죄자의 알콜 의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Finkelhor은 성범죄자들이 성범죄의 탈억제물로 알코올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5]. 외국 연구를 살펴보면, 50% 이상의 성범죄자들은 알콜중독이며[41][42], 국내외 연구에서 다른 범죄에 비해 성범죄는 음주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3][44].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알콜의존이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으로 추정하고, 알콜의존 수준을 일반인이나 일반 범죄자와 비교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1.8 충동성

충동성이란 자신의 행동에 불러일으킬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행동하려는 것으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이는 범죄자들에게서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45].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MMPI-2를 활용한 국내 연구에서도 성범죄자들을 '호소형', '위축형', '반사회성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위축형',과 '반사회성형'이 충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46]. 이외에도, Finkelhor의 아동 성학대 통합모델[5], Ward & Hudson의 자기조절모델[47] 등 다양한 성범죄 모델에서도 성범죄자는 외적통제요인이나 내적통제요인이 있음에도 충동적인 경우 억제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설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 성인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범죄로 인해 보호관찰소와 교도소에 수감

되어 있는 성범죄자, 성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인하여 교도소에 복역 중인 일반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교도소의 협조를 통해 배포,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대조집단을 설정하기 위해서 및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설문을 실시하였다. 최초 본 연구대상으로는 성범죄자 139명, 일반 범죄자 121명, 일반인 197명으로 총 457이었다. 이들 중에서 일반인 집단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평균(43.89) 및 표준편차(3.97)를 기준으로 2표준편차 이상과 미만에 해당하는 성범죄자, 일반 범죄자 및 일반인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성범죄자 123명, 일반 범죄자 102명, 일반인 162명 총 389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2.2 측정도구

공감. 본 연구에서는 Baron-Cohen과 Wheelwright가 개발한 공감지수(Empathy Quotient : EQ) 척도를 허재홍, 이찬종이 번안, 수정하여 만든 Korean Empathy Quotient(K-EQ)를 사용하였다[48]. 이 척도는 '인지공감, 정서공감, 사회기술'이라는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79이었다[48].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공감척도 전체, 인지공감, 정서공감, 사회기술에서 성범죄자는 .84, .88, .72, .79이었고, 일반범죄자는 .88, .93, .85, .81이었으며, 일반인은 .87, .92, .73, .74로 나타났다.

자기존중감. 자기존중감은 Rosenberg가 개발한 척도를 한국판으로 번안한 척도를 사영하였다. 번안한 척도의 신뢰도는 .89이었다[49].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성범죄자 .76, 일반범죄자 .80, 일반인 .83으로 나타났다.

수치심. 1987년 Harder와 동료 연구자들이 만든 수치심과 죄책감(PFQ) 척도를 번안한 한국판 PFQ-2를 사용하여 수치심을 측정하였다. 번안한 연구에서의 척도 신뢰도는 .76-.91로 나타났다[50].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성범죄자 .93, 일반범죄자 .91, 일반인 .93이었다.

우울. Beck의 원문항을 한국판으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로 BDI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았다. 선행연구에서, BDI의 신뢰도는 일반인에서 .78, 우울환자에서 .85로 보고되었다[51].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성범죄자 .88, 일반범죄자 .87, 일반인 .87로 나타났다.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척도(Psychopathy Checklist - Revised: PCL-R)는 Hare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서 2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한국판 PCL-R의 신뢰도는 .84-.93이었다[52]. PCL-R을 자기보고형으로 실시한 본 연구에서의 척도 신뢰도는 성범죄자 .87, 일반범죄자 .85, 일반인 .75로 나타났다.

분노. 한국판 상태-특성분노 척도(STAXI-K :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사용하였으며[53],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분노수준을 측정하고자 특성분노를 제외한 상태분노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더 많은 분노를 느끼는 것으로 신뢰도는 .89이었다[53].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성범죄자 .90, 일반범죄자 .92, 일반인 .92이었다.

알콜의존. 알콜의존척도(Cut down, Annoyed, Guilty, Eye opener: CAGE)는 음주문제 선별검사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54].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성범죄자 .76, 일반범죄자 .67, 일반인 .63으로 나타났다.

충동성. 충동성 척도는 Barratt Impulsiveness Scale-II(Barratt BIS-II)를 번안한 것으로 23개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으며, 신뢰도는 .81로 나타났다[55].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척도 전체, 무계획 충동성, 운동 충동성, 인지충동성에서 성범죄자는 .85, .69, .79, .57이었고 일반범죄자는 .85, .70, .77, .60이었으며, 일반인은 .86, .71, .74, .63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바람직성.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는 Stober의 SDS-17을 번안하여 한국어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로 개발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행동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16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는 .77로 보고되었다[56].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성범죄자 .38, 일반범죄자 .44, 일반인 .44로 나타났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는 성범죄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추정하기 보다는 연구대상자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 123명, 일반 범죄자 102명, 일반인 162명으로 총 389명을 대상으로 SPSS 18.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로는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학력, 연령, 결혼유무, 직업을 통제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성범죄자, 일반범죄자와 일반인의 심리적 특성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Bonferroni방식을 사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1.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연령분포는 성범죄자의 경우 30, 40대가 각 35.0%(43명)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범죄자의 경우에도 40대가 43.1%(44명)로 많았고 일반인은 20대가 64.2%(104명)으로 가장 많았다[표 1].

결혼상태는 모든 집단에서 미혼이 가장 많았으며, 성범죄자의 60.2%(74명), 일반범죄자의 41.2%(42명), 일반인의 79.0%(128명)이 해당하였다[표 1].

학력은 모든 집단에서 고졸이하가 가장 많아 성범죄자의 48.8%(60명), 일반범죄자의 41.2%(42명), 일반인의 38.9%(63명)가 해당하였다[표 1].

직업은 성범죄자와 일반 범죄자의 경우 뚜렷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여 기타항목을 선택한 성범죄자 26.8%(33명), 일반범죄자 37.3%(38명)로 가장 많았고, 일반인의 경우 학생이 51.2%(87명)로 가장 많았다[표 1].

음주정도는 가장 많은 대상자가 주 1-2회 음주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성범죄자: 35.8%,44명, 일반범죄자: 39.2%,40명, 일반인: 35.8%,58명)[표 2].

표 1.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 령 대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대상자	성범죄자	2(1.6%) (0.5%)	21(17.1%) (5.4%)	43(35.0%) (11.1%)	43(35.0%) (11.1%)	14(11.4%) (3.6%)	0(0%) (0%)	123(100.0%) (31.8%)
	일반 범죄자	0(0%) (0%)	12(11.8%) (3.1%)	22(21.6%) (5.7%)	44(43.1%) (11.4%)	17(16.7%) (4.4%)	7(6.9%) (1.8%)	102(100.0%) (26.4%)
	일반인	2(1.2%) (0.5%)	104(64.2%) (26.9%)	31(19.1%) (8.0%)	19(11.7%) (4.9%)	5(3.1%) (1.3%)	1(0.6%) (0.3%)	162(100.0%) (41.9%)
전체		4 (1.0%)	137 (35.4%)	96 (24.8%)	106 (27.4%)	36 (9.3%)	8 (2.1%)	387 (100.0%)

		결 혼 상 태				전체
		미혼	기혼(동거포함)	이혼(별거포함)	기타	
대상자	성범죄자	74(60.2%) (19.1%)	19(15.4%) (4.9%)	29(23.6%) (7.5%)	1(0.8%) (0.3%)	123(100.0%) (31.8%)
	일반 범죄자	42(41.2%) (10.9%)	40(39.2%) (10.3%)	19(18.6%) (4.9%)	1(1.0%) (0.3%)	102(100.0%) (26.4%)
	일반인	128(79.0%) (33.1%)	30(18.5%) (7.8%)	2(1.2%) (0.5%)	2(1.2%) (0.5%)	162(100.0%) (41.9%)
전체		244 (63.0%)	89 (23.0%)	50 (12.9%)	4 (1.0%)	387 (100.0%)

		학 력							전체
		무학	초등중퇴/졸업	중등중퇴/졸업	고등학교 졸업이하	초대졸 또는 대학중퇴	대졸	석사 이상	
대상자	성범죄자	0(0%) (0%)	12(9.8%) (3.1%)	22(17.9%) (5.7%)	60(48.8%) (15.5%)	22(17.9%) (5.7%)	6(4.9%) (1.6%)	1(0.8%) (0.3%)	123(100.0%) (31.8%)
	일반 범죄자	1(1.0%) (0.3%)	2(2.0%) (0.5%)	11(10.8%) (2.8%)	42(41.2%) (10.9%)	21(20.6%) (5.4%)	22(21.6%) (5.7%)	3(2.9%) (0.8%)	102(100.0%) (26.4%)
	일반인	5(3.1%) (1.3%)	0(0%) (0%)	1(0.6%) (0.3%)	63(38.9%) (16.3%)	31(19.1%) (8.0%)	52(32.1%) (13.4%)	10(6.2%) (2.6%)	162(100.0%) (41.9%)
전체		6 (1.6%)	14 (3.6%)	34 (8.8%)	165 (42.6%)	74 (19.1%)	80 (20.7%)	14 (3.6%)	387 (100.0%)

		직 업								전체
		학생	판매/서비스직	사무직	임시직/아르바이트	노동/노무직	생산/기능직	농수산	기타	
대상자	성범죄자	3(2.4%) (0.8%)	19(15.4%) (4.9%)	21(17.1%) (5.4%)	8(6.5%) (2.1%)	17(13.8%) (4.4%)	20(16.3%) (5.2%)	2(1.6%) (0.5%)	33(26.8%) (8.5%)	123(100.0%) (31.8%)
	일반 범죄자	1(1.0%) (0.3%)	23(22.5%) (5.9%)	23(22.5%) (5.9%)	2(2.0%) (0.5%)	9(8.8%) (2.3%)	6(5.9%) (1.6%)	0(0%) (0%)	38(37.3%) (9.8%)	102(100.0%) (26.4%)
	일반인	87(51.2%) (21.4%)	16(9.9%) (4.1%)	29(17.9%) (7.5%)	3(1.9%) (0.8%)	4(2.5%) (1.0%)	4(2.5%) (1.0%)	1(0.6%) (0.3%)	22(13.6%) (5.7%)	162(100.0%) (41.9%)
전체		87 (22.5%)	58 (15.0%)	73 (18.9%)	13 (3.4%)	30 (7.8%)	30 (7.8%)	3 (0.8%)	93 (24.0%)	387 (100.0%)

표 2. 대상자의 음주정도

		대상자			전체
		성범죄자	일반 범죄자	일반인	
음주 정도	안함	20(16.3%) (5.2%)	16(15.7%) (4.1%)	24(14.8%) (6.2%)	60 (15.5%)
	월 1회	18(14.6%) (4.7%)	10(9.8%) (2.6%)	35(21.6%) (9.0%)	63 (16.3%)
	주 1-2회	44(35.8%) (11.4%)	40(39.2%) (10.3%)	58(35.8%) (15.0%)	142 (36.7%)
	월 2-3회	26(21.1%) (6.7%)	8(7.8%) (2.1%)	26(16.0%) (6.7%)	60 (15.5%)
	주3-5회	15(12.2%) (3.9%)	28(27.5%) (7.2%)	19(11.7%) (4.9%)	62 (16.0%)
전체		123(100.0%) (31.8%)	102(100.0%) (26.4%)	162(100.0%) (41.9%)	387 (100.0%)

표 3. 일반인, 일반 범죄자 및 성범죄자에 따른 개인 수준 심리적 특성 차이검증

변 인	대 상 자			F값	사후검증 (Bonferroni) [1]
	성범죄자 (N=123)	일반 범죄자 (N=102)	일반인 (N=162)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조정된 평균 (표준오차)	조정된 평균 (표준오차)	조정된 평균 (표준오차)		
우울 척도	14.84(9.58)	9.78(7.25)	7.01(6.26)	17.225***	1>2 1>3
	13.91(0.74)	8.97(0.81)	8.23(0.69)		
분노 척도	13.48(4.14)	12.86(3.80)	13.36(4.56)	0.230	1=2=3
	13.44(0.41)	13.04(0.45)	13.29(0.39)		
자기존중감 척도	18.95(4.57)	21.25(5.09)	20.81(5.12)	3.693*	2>1
	19.44(0.47)	21.28(0.52)	20.43(0.45)		
공감 척도	55.02(7.51)	56.71(9.49)	57.64(9.10)	1.119	1=2=3
	55.58(0.84)	56.37(0.82)	57.43(0.78)		
공감 하위척도 (인지공감)	29.65(6.02)	31.02(7.24)	32.28(6.92)	1.677	1=2=3
	30.16(0.65)	31.00(0.71)	31.91(0.61)		
공감 하위척도 (정서공감)	10.89(2.31)	11.31(2.75)	10.99(2.34)	.290	1=2=3
	10.90(0.24)	11.13(0.26)	11.10(0.22)		
공감 하위척도 (사회기술)	14.49(2.46)	14.37(2.91)	14.38(2.84)	.276	1=2=3
	14.53(0.27)	14.25(0.29)	14.43(0.25)		
충동성 척도	26.23(8.51)	22.66(8.63)	26.69(9.31)	3.061*	1>2 3>2
	25.93(0.85)	23.44(0.94)	26.42(0.80)		
충동성 하위척도 (무계획)	11.33(3.98)	9.97(4.02)	11.49(4.17)	1.767	1=2=3
	11.29(0.39)	10.34(0.43)	11.29(0.37)		
충동성 하위척도 (운동)	6.26(3.66)	5.53(3.75)	6.51(3.62)	.642	1=2=3
	6.22(0.36)	5.79(0.39)	6.38(0.33)		
충동성 하위척도 (인지)	8.63(2.63)	7.16(2.67)	8.68(2.97)	6.842***	1>2 3>2
	8.42(0.27)	7.31(0.29)	8.75(0.25)		
수치심 척도	19.32(6.49)	17.25(5.64)	18.74(7.27)	1.571	1=2=3
	19.41(0.64)	17.84(0.71)	18.30(0.60)		
사이코패스 척도(PCL-R)	7.05(5.35)	8.01(5.33)	7.93(4.26)	2.008	1=2=3
	6.96(0.48)	8.30(0.53)	7.81(0.45)		
알콜의존 척도	6.76(1.38)	6.80(1.26)	6.96(1.17)	.282	1=2=3
	6.80(0.12)	6.93(0.14)	6.84(0.12)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1] 사후검증에서는 Bonferroni방식을 활용하여 유의수준을 .05대신에 .0167을 사용하였다. 사후검증의 1:성범죄자, 2:일반 범죄자, 3:일반인.

2. 성범죄자의 개인 수준 심리적 특성

학력, 연령, 결혼유무, 직업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에,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특히, 공분산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기본가정이 지지됨을 확인하였다.[1] 공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개인적 변인들 중에서 우울(F=17.225, p<.001), 자기존중감(F=3.693, p<.001), 충동성(F=3.061, p<.001), 충동성-인지(F=6.842, p<.001)는 세 집단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차이의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분산분석에서 사용될 수 있는 사후검증인 Bonferroni 방법을 활용하여 각 집단들 간의 평균을 개별적으로 비교하였다.

Bonferroni 사후검증을 시행한 결과, 우울수준에서 성범죄자(M=14.84, SD=9.58)가 일반범죄자(M=9.78, SD=7.25, p<.0167)와 일반인(M=7.01, SD=6.26, p<.0167)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존중감도 성범죄자(M=18.95, SD=4.57)가 일반범죄자

1 공분산분석의 기본 가정의 검증을 확인한 결과, 공분산(예, 연령대 및 학력)과 종속변수간의 선형성이 존재였다. 이에 덧붙여서, 공분산(학력, 연령, 결혼유무, 직업)과 집단의 상호작용효과의 유의하지 않은 효과로(Wilk's Lambda > .95, ps>.357) 회귀계수의 동질성이 지지됨을 확인하였다.

(M=21.25, SD=5.09, p<.0167)보다 더 낮았다. 충동성은 성범죄자(M=26.23, SD=8.51)가 일반범죄자(M=22.66, SD=8.63, p<.0167)보다 충동적이었으며, 일반인(M=26.69, SD=9.31)이 일반범죄자(p<.0167)보다도 더 충동적인 것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음. 또한, 충동성에서 충동성의 하위척도인 인지충동성에서는 성범죄자(M=8.63, SD=2.63)가 일반범죄자(M=7.16, SD=2.67, p<.0167)보다 충동적이나 일반범죄자보다 일반인(M=8.68, SD=2.97, p<.0167)이 더 충동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사이코패스 성향에서는 성범죄자(M=7.05, SD=5.35)보다는 일반범죄자(M=8.01, SD=5.33, p<.0167)가 더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다.

IV. 논 의

본 연구결과, 가설에서 세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 검증되었다. 우울, 자기존중감, 충동성, 충동성-인지 변인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노, 공감, 공감-인지공감, 공감-정서공감, 공감-사회기술, 충동성-무계획, 충동성-운동, 수치심, 사이코패스, 알콜의존 변인에서는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우울변인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성범죄자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는 수치심과 우울을 비롯한 정신장애 간의 정적상관을 일관되게 보고하였다[32][33].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음에도 우울에서의 유의미한 차이가 시사되었다. 이는 스트레스가 자기존중감을 낮추고 이후 낮은 자기존중감이 우울에 이르게 된다[57]는 연구처럼 본 연구에서도 성범죄자가 일반범죄자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자기존중감 수준을 보였다. 이외에도, 교도소 수용생활에서 성범죄자들이 수감된 죄명을 감춰야 할 정도로 일반범죄자에게 무시를 당하는 등 수용환경으로 인해 우울수준이 높아진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수감환경에 의한 혼입변인을 최대한 통제하고자 성범죄자와 일반범죄자를 함께 연구하여 보완하였다.

자기존중감의 경우 성범죄자들이 일반범죄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범죄자들이 주로 아동기에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로 인해 자기존중감이 약한 것으로 보고되어 온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58]. 또한, 효과적인 대처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자기존중감이 저하된다고 보고가 있다[59]. 이와 함께, 낮은 자기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행동에 대한 시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60-62]. 이에 성범죄자들은 어린 시절 형성된 낮은 자기존중감으로 인해 새로운 시도없이 반복적으로 부적응적 대처를 사용하여 더욱 자기존중감이 저하되는 역기능적인 순환고리를 경험하는 것으로도 유추된다.

충동성의 경우, 세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변인인 인지충동성에서 성범죄자들이 일반범죄자들보다 더 충동적이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충동성이 강간의 유의미한 예측변수로 보고되어 온 것과 일치한다[63][64].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결과로 볼 때 단순하게 충동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인지충동성이 예측변인으로서 성범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성범죄자들이 충동적으로 생각하여 차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숙고없이 성욕을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부적절한 성행동을 할 것이다.

비록 사이코패스 성격특성은 일반범죄자와 성범죄자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이코패스 성격특성은 일반범죄자가 성범죄자보다 높은 수준으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다. 이는 사이코패스적인 강간범과 그렇지 않은 강간범 사이에는 차이점이 없다는 주장[65]과 사이코패스가 강간의 이유를 설명하는 완전한 요인은 아니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66]. 또한, 국내외 연구에서 교도소 수감자의 약 15%-25% 정도가 사이코패스로 나타나 대다수의 범죄자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은 아니었다[35][36]. 그러므로 최근 한국 성범죄자들의 경우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깊다는 뉴스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성범죄자들이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졌다는 표현보다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범죄자의 일부에 국한되는 것이다. 특히, Palermo와 Farkas의 주장처럼[66] 사이코패스 성향이 성범죄를 유발하는 필수조건이 아

니기에 한국 성인 성범죄자들의 심리적 특성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은 제외해야 할 것이다.

공감능력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신의진과 동료들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범죄자와 청소년 일반범죄자 간에 공감능력의 차이를 보였으나[67], 정해식의 연구에서 성인 성범죄자와 일반범죄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공감능력의 차이가 없었던 것과 일치한다[68]. 이로 볼 때, Hudson 등이 성폭력 가해자와 폭력 가해자들은 감정 인식 기술이 부족하고 특히 놀람, 공포, 분노, 혐오의 감정을 알아채는 것에 둔하다고 보고하는 등[12], 기존 외국연구에서 꾸준하게 제시되어온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인 공감능력의 저하가 한국 성인 성범죄자의 개인 수준의 심리적 특성에서는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 가운데 문화적 차이에 의한 한국적인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알콜의존에 대한 특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박지선, 박인선의 연구결과처럼 일반인들이 강간범죄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표상과 달리 실제 강간범죄자들은 범행 당시 술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정상 상태라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69].

이처럼 논의된 개인 수준의 심리적 특성을 볼 때, 성범죄자 집단이 일반범죄자와 일반인 집단과 사후검증에서도 차이를 보인, 우울이 핵심적인 성범죄자들의 심리적 특성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는, 일반범죄자와 성범죄자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자기존중감, 충동성, 충동성-인지가 부수적인 심리적 특성으로 생각되어 이러한 변인을 중심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하여 치료효과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성범죄의 대부분을 성인 성범죄자들이 저지르고 있지만, 주로 청소년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특성연구를 하였고, 단순히 성범죄의 특성을 구분하고 분류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 범죄자들과 성범죄의 특성을 비교하는 시도가 있으나, 본 연구처럼 일반범죄자까지 포함하지 못하였으며 연구변인들도 다양한 성범죄자의 개인 수준 심리적 특성들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제한점들과 앞서 연구결과로 인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성인 성범죄자들의 개인 수준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보고되어 왔던 개인 수준 심리적 특성을 일부 변인 만이 아닌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셋째,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 일반범죄자 집단을 포함해 비교 연구를 하여 한국 성범죄자만의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연구결과에서 한국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으로 우울수준이 핵심 특성으로 판단되며, 낮은 자기존중감 충동성, 충동성-인지가 부수적인 심리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기존 연구에서 충동성을 주로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으로 다루었는데 충동성 가운데서도 인지적인 면에서의 충동성이 핵심으로 보인다. 여섯째, 기존 연구에서 보고되어온 공감능력의 저하, 높은 알콜의존 수준은 한국 성범죄자의 개인 수준 심리적 특성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일곱째, 사이코패스 성향은 범죄자들의 일반적인 성향으로 일부 범죄자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들의 개인 수준 심리적 특성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여덟째, 연구결과로 볼 때, 우울, 인지적인 충동성 낮은 자존감 등을 치료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어온 인지행동치료를 중심으로 성범죄자의 치료 및 교정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성범죄자의 특성을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성범죄자의 치료적 효과가 높아지면 많은 성피해자를 줄이고 성피해자의 치료비용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이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연구대상자들을 직접 만나는데 제약이 있고 개인정보보호문제로 인해 성범죄자들의 과거 범죄경력 및 성범죄 내용을 성범죄자들이 직접 설문작성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연구과정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통해 자기보고식 연구의 신뢰도 향상의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바람직성척도의 신

뢰도가 .38-.44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김용석, 전수미, 이평순의 결과[70]처럼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과 변수들 간의 관계의 영향을 제한점으로 보고한 것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여전히 자기보고식 척도의 단점인 보고의 신뢰성에 대한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범죄 경력을 비롯한 정보들을 연구자가 직접 양형기록을 살펴보는 등 더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PCL-R과 같은 척도는 전문가가 면접을 통해 평가해야 하는 척도이나, 연구대상자를 접하기 어려운 제약으로 인해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PCL-R이 비록 .75-.87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더 나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실시방법대로 척도를 전문가가 시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충분한 사례 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검증력(power)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검증력(>.80)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연구대상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참 고 문 헌

[1] http://kosis.kr/ups/ups_01List01.jsp?grp_no=&pubcode=KP&type=F

[2] 박경, “남녀 대학생 성피해 경험과 성인지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007.

[3] 임신영, *성피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남녀 성차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4] A. W. Baker and S. P. Duncan, “Child sexual abuse: A study of Prevalence in Great Britain. Child Abuse and Neglect,” Vol.9, pp.457-467, 1995.

[5] D. Finkelhor, *Boys as Victims: review of the evidence,* In D. Finkelhor (ED), Child sexual abuse: new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Free Press, 1984.

[6] 채규만, 정민철, “한국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 및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건강심리학회지, 제9권, 제4호, pp.869-886, 2004.

[7] 송원영, *성폭력 범죄로 보호관찰중인 청소년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8] 이수정, 장현석, “청소년 성폭력의 심리적 원인으로서의 애착결핍”, 한국청소년연구지, 제15권, 제2호, pp.415-442, 2004.

[9] 전영실, “미국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 및 처우프로그램”, 교정연구, 제15호, 2002.

[10] 장석헌, 김도우, 김미경, “성인성범죄자와 청소년 성범죄자의 차별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지, 제7권, 제13호, pp.133-154, 2011.

[11] Y. M. Fernandez, W. L. Marshall, S. Lightbody, and C. O'Sullivan, “The Child Molester Empathy Measure: Description and Examination of Its Reliabiliy and Validity,”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No.11, pp.17-31, 1999.

[12] S. M. Hudson, W. L. Marshall, D. S. Wales, E. McDonald, L. W. Bakker, and A. McLean, “Emotional recognition skills of sex offenders. Annals of Sex Research,” Vol.6, pp.199-211, 1993.

[13] G. Nass, R. Libby, and M. Fisher, *Sexual choices: An introduction to human sexuality*(2nd ed.), Monterey, California: Wadworth Health Science, 1984.

[14] D. Lisak and C. Ivan, “Deficits in intimacy and empathy in sexually aggressive 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10, No.3, pp.296-308, 1995.

[15] M. E. Rice, T. C. Chaplin, G. T. Harris, and J. Coutts, “Empathy for the victim and sexual arousal among rapists and nonrapis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9, No.4, pp.435-449, 1994.

[16] C. M. Hoppe and R. D. Singer, "Overcontrolled hostility, empathy, and egocentric balance in violent and nonviolent psychiatric offenders," Psychological Reports, Vol.39, No.3, pp.1303-1308, 1976.

[17] F. Cortoni and W. L. Marshall, "Sex as a coping strategy and its relationship to juvenile sexual history and intimacy in sexual offende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Vol.13, pp.27-43, 2001.

[18] F. Cortoni, P. Heil, and W. L. Marshall, "Sex as a coping mechanism and its relationship to loneliness and intimacy deficits in sexual offending," Paper presented at the 15th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rs, Chicago, 1996.

[19] L. B Bourque, *Defining Rape*. USA : Duke University Press, 1989

[20] A. H. Buss,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San francisco: Freeman, 1980.

[21] P. A. Pilconis, "Shyness, public and private, and its relationship to other measures of 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Vol.45, pp.585-598, 1977.

[22] D. Watson and R. Friend, "Measurement of social 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33, pp.448-457, 1969.

[23] M. E. Ford and J. A. Linney, "Comparative analysis of juvenile sexual offenders, violent nonsexual offenders, and status offenders," Journal of lnterpersonal Violence, Vol.70, pp.56-70, 1995.

[24] R. Graves, D. K. Openshaw, and G. R. Adams, "Adolescent Sex Offenders and Social Skills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Vol.36, No.2, pp.139-153, 1992.

[25] G. C. Hall and C. Barongan, "Prevention of sexual aggression: Sociocultural risk and protective factors," The American psychologist Vol.52, No.1, pp.5-14, 1997.

[26] D. T. Roys, "Empirical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empathy in sex offen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Vol.41, pp.53-64, 1997.

[27] K. M. Bumby, W. L. Marshall, and C. Langton, "A Theoretical model of the influences of shame and guilt on sexual offending," In B.K. Schwartz (ed.), *The Sex offender: Theoretical Advances, Treating Special Populations and Legal Developments*, Vol.III, pp.5.1-5.12, Kingston, NJ: Civic Research Institute, 1999.

[28] 신기숙,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가톨릭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29] http://m.donga.com/Economy/BestClick/3/all/20130408/54271074/1

[30] 조윤오, "GPS 전자감시제도의 범죄억제력 예측요인 연구", 보호관찰, 제9권, 제2호, 2009.

[31] 정형수, "수치심을 지각하는 정도, 비난의 방향 및 대처방식과 우울과의 관계", 인간이해, 제29권, pp.1-18, 2008.

[32] S. L. McMurrich and S. L. Johnson, "The role of depression, shame-proneness, and guilt-proneness in predicting criticism of relatives towards people with bipolar disorder," Behavior Therapy, Vol.40, No.4, pp.315-324, 2009.

[33] J. P. Tangney, P. Wagner, and R. Gramzow, "Proneness to shame, proneness to guil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101, pp.469-78, 1992.

[34] R. D. Hare, *Without conscience: The disturbing*

world of the psychopaths among us, New York, NY: Pocket Books, 1993.

[35] 조성호, "범죄행동의 조기예측기법에 관한 연구 - 사이코패스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10집, pp.301-328, 2008.

[36] J. R. P. Ogloff, "Psychopathy/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Conundrum.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Vol.409, pp.519-528, 2006.

[37] J. D. Stevens, *Inside the mind of sexual offenders: Predatory Rapists, Pedophiles, and Criminal Profiles,* New York: Authors Choice Press, 2001.

[38] Groth, Burgess, and Holmstrom, "Rape: Power, Anger and Sexualit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34, No.11, pp.1239-1243, 1977.

[39] L. A. Craig, K. D. Browne, and I. Stringer, "Risk scales and factors predictive of sexual offence recidivism," Trauma, Violence, & Abuse, Vol.4, pp.45-68, 2003.

[40] W. D. Pithers, J. K. Marques, C. C. Gibat, and C. A. Marlatt, *Relapse prevention with sexual aggressives: a self-control model of treatment and maintenance of change*, In J.G. Greer & I.R. Stuart (eds), *The sexual Aggressor: Current Perspectives on Treatment*,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83.

[41] J. Abracer, J. Looman, and D. Anderson, "Alcohol and drug abuse in sexual and nonsexual violent offenders," Sex Abuse. Vol.12, No.4, pp.263-274, 2000.

[42] R. Langevin and R. A. Lang, "Substance abuse among sex offenders," Sex Abuse, Vol.3, p.397, 1990.

[43] 여성가족부, *국내·외 아동성폭력범죄 특성 분석 및 피해아동보호체계 연구*, 2010.

[44] A. Abbey, "Acquaintance rape and alcohol consumption on college campuses: How are they linked?,"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Vol.39, pp.165-169, 1991.

[45] R. D. Har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PCL-R): 2nd Editioin* Technical Manuel, Toronto: Multi-Health Systems Inc, 2003.

[46] 정지숙, 조성희, 최지명, "정신감정이 의뢰된 성범죄자들의 MMPI-2 하위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한국임상심리학회지, 제28권, 제4호, pp.1049-1068, 2009.

[47] T. Ward and S. M. Hudson, "A Model of the relapse process in sexual offender," Journal of International Violence, Vol.13, pp.700-725, 1998.

[48] 허재홍, 이찬종, "공감지수(EQ)척도의 심리측정 속성", 인문학연구, 제24권, pp.183-200, 2007.

[49] 이훈진, 원호택,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 년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1995.

[50] 심종온,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및 사건 귀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51] 이영호, 송종용,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임상심리학회지, 제10권, 제1호, pp.98-113, 1991.

[52] 조은경, 이수정, R. D. Hare, 저, *PCL-R 2판 전문가지침서,* 학지사, 2008.

[53]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건강심리학회, 제2권, 제1호, pp.60-78, 1997.

[54] J. A. Ewing, "Detecting alcoholism: The CAGE Questionnaire," JAMA, Vol.252, pp.1905-1907, 1984.

[55] 이현수, *충동성 검사*, 서울: 한국가이던스, 1992.

[56] 김용석, 전수미, 이평순, "한국어판 사회적 바람직성척도(SDS-17)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 - 가정폭력 가해남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8권, 2008.

[57] 최미례, 이인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기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임

상심리학회지, 제22권, 제2호, pp.363-383, 2003.
[58] S. C. Wolf, "A multi-factor model of deviant sexuality," Victm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Vol.10, pp.359-374, 1985.
[59] J. Looman, "Mood, conflict, and deviant sexual fantasies," In B. K. Schwartz(Eds.), The sex offender: Theoretical advances, treating special populations and legal developments, Vol,Ⅲ, pp.3.1-3.11, 1999.
[60] W. L. Marshall, L. E. Marshall, G. A. Serran, and M. D. O'Brien, "Self-esteem, shame, cognitive distortions and empathy in sexual offenders: their integration and treatment implications," Psychology, Crime & Law, Vol.15, pp.217-234, 2009.
[61] D. M. Tice, "Esteem protection or enhancement? Self-handicapping motives and attributions differ by trait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0, pp.711-725, 1991.
[62] D. M. Tice and R. F. Baumeister, "Self-esteem, self-handicapping, and self-presentation: The strategy of inadequate practice," Journal of Personality, Vol.58, pp.443-464, 1990.
[63] 전대양, "연쇄강간범의 범죄심리학적 특성", 한국범죄심리연구, 제2권, 제1호, pp.21-49, 2006.
[64] 조은경, "충동성과 공격성향이 강력범죄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2호, pp.125-178, 1997.
[65] Brown and Forth, "Psychopathy and Sexual Assault: Static Risk Factors, Emotional Precursors, and Rapist Subtyp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65, No.5, pp.848-857, 1997.
[66] Palermo and Farkas, *The Dilemma of The Sexual Offender, Illinois*: Charles C. Thomas Publisher Ltd, 2001.
[67] 신의진, 오채성, 이영준, 송원영, 이경숙, 유은희, "성범죄 청소년의 정신사회적 특징: 일반범죄 청소년과의 비교", 놀이치료연구 제9호, 제1권, pp.39-52, 2005.
[68] 정해식, *남성 성폭력범죄자와 일반범죄자의 심리 특성 비교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69] 박지선, 박인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간 범죄자의 표상 : 실제 국내 강간 범죄자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9호, pp.362-371, 2011.
[70] 김용석, 전수미, 이평순, "한국어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DS-17)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 - 가정폭력 가해 남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8호, pp.5-32, 2008.

저 자 소 개

정 민 철(Min-Chul Jung) 정회원

- 2005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석사)
- 2013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박사)
- 현재 :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강사

<관심분야> : 부부치료, 성치료, 성범죄

조 영 일(Young-Il Cho) 정회원

- 2005년 6월 : Middle Tennessee State University, 심리학과(석사)
- 2009년 8월 :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심리학과(박사)
- 현재 :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성범죄, PTSD, 반사회적 행동, 종단자료분석